

〈민중의 소리〉를 짓다

● 장 기 표

*장기표님은 1966년 서울대 법대 재학중 학생운동에 투신하여 활동하다가 1971년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되어 복역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되어 수배되었으며, 1977년 청계피복노조사건으로 구속되고, 1980년 김대중내란 음모사건으로 수배되었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수배, 연행, 구속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 서왔다.

민청학련사건! 할 말이 많은 사건이다. 보고서나 연구서라도 하나 써볼 만한 사건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마침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에서 「민중의 소리」와 관련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민청학련사건을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의 좌경용 공행위’로 매도하는데 크게 이용된 「민중의 소리」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밝혀두고자 한다.

「민중의 소리」는 그야말로 70년대 초반 민중이 겪고 있던 아픔과 한과 분노,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각계의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쓴 글이었다.

한때 김지하 시인의 작품으로 알려졌던 이 글은 일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널리 소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청계피복노동조합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는 이 글 때문에 국제펜클럽에서 나를 시인으로 대우하여 석방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을 만큼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문학작품의 반열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글이고, 그저 집회나 시위 때 사용할 만한 구호를 모아놓은 글일 뿐이다.

그러나 나 스스로도 놀라는 것은 당시 사회 각 부문의 문제에 대해 가사체 형식으로 글을 정리했느냐 하는 점이다. 그 당시 내가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에 얼마나 몰두해 있었던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글이어서 가슴이 저려온다. 하기가 당시 나는 직업운동가로 자나깨나 박정희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집회와 시위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지 않았

나 싶다.

이 글은 1973년 말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계기로 유신독재의 철폐를 요구한 '10·2테모'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구속당했다가 특사로 석방된 후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숨어살면서 쓴 글이다. 특사로 풀려났어도 나는 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일상적으로 수사기관의 감시대상이 되어 있었지만, 특히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규탄하는 투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혹시 내가 김대중씨 납치사건의 주범으로 당시 박정권의 실세이던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씨를 지목할까봐 싶어 박종규씨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특명을 내려 나의 신병이 중앙정보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에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하여금 나를 계속해서 밀착 감시하게 하였다.

이미 나는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씨를 납치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그런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 경호실을 끌어들이 의사가 없었는데도 박종규씨가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청와대 내지는 박정희가 김대중납치 사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과 같이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박종규씨가 그렇게나 예민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다.

결국 이후락씨가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이후 정부 요직에 기용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후락씨에게 지움으로써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하려는 치밀한 노력이 있

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정희의 최측근이었던 박종규씨와 이후락씨의 권력투쟁도 있었을 것 같고, 이 투쟁에서 이후락씨가 밀려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하여튼 나는 이런 이유로 민청학련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1973년 말부터 수배 아닌 수배생활을 하게 되었고, 피신생활을 하면서 그해(1974년) 봄에 박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서 국민 대중의 총결기를 호소하기 위해 쓴 글이 바로 「민중의 소리」였다.

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글은 국민 각계의 총결기, 곧 민중봉기를 촉구한 글이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고는 쓰기 힘든 글이었다. 따라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당시 나는 전태일 동지의 모친 이소선 어머니가 구해준 방에서 이 글을 썼는데, 이소선 어머니에게조차 이 글을 보여드리지 않았다.

이소선 어머니는 나더러 무슨 글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고 묻곤 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슨 글을 쓰는지 말하는 법이 없었다.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일은 알지 않게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수사기관에 불러갔을 때 알고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온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와 청계피복노조와의 관계로 보아 이소선 어머니가 구해주는 방에서 피신생활을 할 일은 아니었으나, 이소선 어머니는 원체 능수능란한 분이어서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민청학련사건이 터지고서는 나와 연고가 있는 사람

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방문조사를 받는 데다 이소선 어머니의 경우는 더 심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는 날 우연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막 짐보따리를 택시에 싣고 떠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나와 막 헤어진 이소선 어머니와 맞닥뜨렸다. 이소선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얼핏 보기에다 수상했지만 알고 보니 북부경찰서 형사였다. 그 형사는 이소선 어머니에게 택시에 태워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나를 택시에 태워 보내는 것을 보았던 모양이었다. 설사 나인 줄을 알았더라도 이미 내가 그곳을 벗어난 이상 나를 잡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소선 어머니가 상당한 시달림을 받기는 했을 터였다.

1974년 초에 나온 긴급조치 1호부터 형량이 보통 20년 이상이라 나를 숨겨준 집이 드러나면 상당한 고초를 겪을 상황이었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해서 잘 모면했다는 말을 후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피신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만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김병곤이었다. 나는 「민중의 소리」를 김병곤에게 주었다. 김병곤은 서울상대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고향 후배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김병곤을 만난 것은 당시 김병곤이 그해 봄에 있을 학생운동을 주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병곤은 결국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선고를 받고서 그 자리에서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했었

다. 서술이 시퍼런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서 “영광입니
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김병곤의 이런 당당한 자세는 그의 삶 곧 반독재투쟁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1년여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그가 나타내 보인 인내와 사랑은 가히 성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의 장례식 때 나는 그를 기리는
조사에서 ‘성자’로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는 성자임에 분명
하다.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은가
싶다.

김병곤은 이 글을 가져가 수만 부를 인쇄해서 전국 학생운동
권에 배포했다. 후일 물어본 일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용달차로
유인물을 실어 날랐다고 한 것을 보면 엄청난 양을 인쇄했던 것
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민청학련은 시위를 벌이기도 전에 검거되었다. 김병곤
도 일단 피신했으나 결국 검거되었다. 이 글의 출처를 당연히 추
궁받았을 것이다. 한 동안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김병
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다.

김병곤이 이 글의 작성자를 불지 않으니, 중앙정보부는 이
글을 김지하 시인의 작품으로 본 것 같았다. 그래서 김지하 시인
의 작품으로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지하 시인도 꽤나 추궁
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달 가까운 조사 끝에 수사결과를 발
표한 것을 보니 내가 쓴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글은 당시 민청학련 사건을 좌경용공으로 모는 데 크게

이용되었다.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민관식씨가 「민중의 소리」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처음으로 ‘자생적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사용했다.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것이지만 ‘자생적’이란 말을 씌으로써 이북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인정했다.

나는 여러 차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누명을 덮어쓴 일은 많으나 이북 즉 간첩과 연계된 것으로 추궁된 적은 거의 없다. 아마 대학 초년생 때부터 너무 자주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보니 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이북과 관련지를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의 내용을 들어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이북과 연계짓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생적 공산주의자로’로 몰아 붙였다. 자생적 공산주의도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북과 연계되지 않은 것만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북의 체제와 사상에 대해 공감하는 일이 없었다. 이북과 연계하여 민주화운동을 한 일이 없고, 또 그런 것을 당연히 경계해 왔다. 이북의 체제와 사상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북에 연관되어 있어서는 민주화운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이 이러한데도 나는 구속될 때마다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그간의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알 수 있다.(그런데 나는 ‘이선실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을 산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안기부가 나를 이북과 연계짓기 위해 만들어 낸 사건으로 보였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아무튼 민청학련 사건 당시의 일이 엇그제 일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더니 세월의 무상함에 놀랄 뿐이다. 그 험난한 세상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 남은 것만도 다행스러워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 열렬히 투쟁하다 이미 죽은 후배와 동지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1974년 겨울의 그 엄혹하던 시절, 내가 「민중의 소리」를 작성하여 김병곤에게 건네주기 전에 한 부 복사하여 집에 보관할 수가 있었겠는가? 또 보관했었던들 그 후 십 수차에 걸친 연행, 가택수색, 투옥의 역정에서 「민중의 소리」가 내 집에 그냥 고이 모셔져 있을 수가 있었겠는가?

지금 나에게는 「민중의 소리」가 한 부도 없다. 그러나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에서 펴낸 『비상보통군법회의판결문집』에 검찰측 증거물로 「민중의 소리」가 수록되어 있어, 자료삼아 그 전문을 싣는다.

우리호소 들어보소 배고파서 못살겠소
언제까지 참으면서 위정자만 믿으라나
저소득에 시달린몸 물가고에 압사하고
팔십년대 바라다간 조른허리 동강난다
국제파동 핑계대고 책임회피 하는구나
허튼수작 그만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유신이란 간판걸고 국민대중 기만하여

민주헌법 압살위에 유신독재 확립하니
기본권은 간곳없고 생존마저 위태롭다
반체제를 내세워서 민주인사 투옥하여
학생들과 종교인을 반역자로 몰아치니
공포정치 폭력정치 최후발악 하는구나
정권위기 알았거든 순리대로 물러나라
정치깡패 오일육의 매국행위 살펴보자
제국주의 일본놈이 민족독립 억누를때
일본군에 들어가서 독립군을 잡더니만
미국놈이 들어오니 거기가서 아부하고
요래조래 줄타가며 기회만을 엿보다가
사월혁명 피려할 때 쿠데타를 일으켰네
가시내가 애를배도 제할말은 있다더니
민족역적 오일육도 구변만은 좋을새라
반공이란 구호들고 구악일소 외치면서
민생고를 해결한단 혁명공약 내었다가
민정복귀 한다면서 군복만을 갈아입고
근대화다 건설이다 대외의존 명분찾아
한일국교 열고부터 본격적인 민족배반
외국자본 끌어들여 민족경제 파탄하고
특권층의 치부속에 신악들이 활개칠때
중단없는 전진이라 삼선개헌 단행하여
개발독재 내세워서 자기합리 하더니만
칠십년대 풍요라고 선전하고 다녔었지

정권교체 열망하는 시민함성 높아지니
 혼란없는 안정이라 국민위협 자행하여
 예비군과 교련으로 위기의식 조장하고
 원천적인 부정속에 선거놀음 하였세라
 풍요타던 칠십년대 빈곤으로 닥쳐오니
 비상사태 선언하여 폭력으로 누르면서
 민족통일 기만하여 유신독재 확립하곤
 팔십년대 소득천불 환각전술 펴는구나
 절대권력 십삼년에 오적들만 살렸으니
 중단없는 부패속에 혼란없는 영화였네
 국민원성 비등할땐 부패일소 공약하고
 정권위기 닥쳐와도 숙정으로 생색내나
 두목들은 끄떡않고 송사리만 쫓겨나니
 느는것은 원성이요 쌓이느니 분노로다
 국민총화 총력안보 말버릇이 되었건만
 빈부격차 확대속엔 총화전진 어림없고
 억압속의 질서로는 혼란만이 심화된다
 아기보는 국회의원 들러리로 세워두고
 대통령이 법관임명 삼권분립 없앤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꼭두각시 뽑아두고
 팻쇼근성 드러내어 민주주의 결별하니
 국민들의 항거속에 국제고립 사는도다
 코에걸면 코걸이요 귀에걸면 귀걸이인
 반공법과 보안법을 정권유지 수단삼아

문인들과 지식인을 간첩으로 돌려대며
유언비어 법만들어 민주시민 잡아드니
법치국가 이름밑에 악법들이 난무쿠나
경제예속 담보하고 독재정권 유지하니
국제파동 미미해도 국민경제 흔들하네
석유파동 핑계대어 예속경제 은폐말라
국민들은 모두안다 위정자의 경제실책
경제협력 미명아래 신식민지 되었으니
경제자립 요원한데 조국통일 어렵구나
오십억불 부채속에 빚얻기도 힘이들어
동남아로 유럽으로 구걸사절 특파하니
처량하다 우리신세 국제거지 되었구나
수출입국 자랑속에 무역적자 확대되어
돌덩이랑 흙덩이랑 있는대로 실어내어
백억불을 수출할땐 국토까지 안남겠다
원조곡물 좋아하다 농촌경제 망쳐놓고
국제곡가 폭등하니 어쩔줄을 모르누나
농업발전 이룩돼야 경제성장 건설하지
원자재를 의존해선 미래위의 누각이다
석유때라 연탄때라 갈팡질팡 하는통에
연탄난로 석유난로 번갈아서 고물되니
고철값도 비싼터에 이손실이 얼마런가
못하나도 아낀다는 교훈이야 알건만은
개인적인 절약으로 정책낭비 당할순가

석유재벌 결탁하여 정유공장 세워놓고
정치자금 뜯어내는 위정자의 간계보라
석유소비 늘리려고 고속도로 만들어서
마이카를 외치면서 자동차를 팔아먹고
주유종탄 뇌까리며 석탄생산 억제하네
석유류의 관련산업 육십프로 이르러니
석유파동 일때마다 경제위기 오게됐네
이것만도 억울한데 불평등한 계약보소
장사치곤 이상한게 미리부터 이익보장
원가계산 모르면서 이익률만 보장하니
불평등도 유분수지 이럴수가 있겠는가
외자기업 이윤폭리 가만보고 넘길건가
투자환경 정비라는 매판근성 발휘하여
면세조치 부정특혜 조상처럼 모시면서
노조까지 억압하려 특별법을 만들더니
일년간의 송금액은 이억불을 넘었으니
국내기업 이익금도 이만큼이 되겠는가
공업단지 수출센타 지역격차 확대하고
자본집중 논리밑에 대기업에 특혜주니
중소기업 도산하고 독점횡포 극심하고
중화학의 육성이라 내자조달 한다면서
세금수탈 공포속에 적금까지 강요하네
국내공업 보호위해 자본기술 지원하고
국토개발 계획하여 제대로만 이용하면

석유파동 원자재난 걱정할것 뭐있겠소
석탄을랑 버려두고 석유에만 매달리며
자원개발 생각없이 수입에만 의존하니
국내산업 황폐화에 대외의존 심화로다
개발이라 하는것도 외자와의 결탁하니
이정권의 경제정책 민을것이 하나없다
사양산업 끌어들여 근로자의 피를빨고
공해산업 수입하여 국민숨통 막는도다
자격없고 능력없고 의사마저 없는것이
조국통일 떠벌림이 구두선이 되었구나
남북대화 한다면서 국민에게 환상주고
형식회담 결렬될땐 정치선전 일삼으니
남북문제 역이용이 정권유지 최후수단
어리석은 위정자야 최후일언 경고한다
민중궐기 누르고자 이적행위 조작말고
정권위기 극복코자 국지전을 초래마라
속을자가 있긴커녕 분노만을 더욱산다
민심따른 퇴각일때 목숨이나 보존치만
민족앞에 죄지으면 살아날길 전혀없다
통일위한 지름길로 국력배양 외치지만
정치경제 파탄속엔 무엇으로 배양할고
조국통일 가는길은 자립경제 자주정치
매판정권 타도하고 근본부터 고쳐가자
노동정책 이념아래 권익옹호 한다지만

기업주만 위하면서 근로자는 속이도다
근로자의 비참상을 분신으로 고발하고
단결하여 싸울것을 유언으로 호소했던
노동투사 전태일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법률상의 노동실권 시행령이 얽어대고
최소한의 쟁의권도 보위법이 짊누르니
악법대로 한대서야 생명부지 못하겠다
오백만의 근로자야 한데몽쳐 꺾기하자
기본적인 생존권도 버려두면 박탈되고
법률상의 권리들도 투쟁없인 보장없다
어용노조 만들어서 근로자를 배신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운동 탄압해도
우리살길 위하여서 정치투쟁 하여가세
성장뒤에 분배한단 속임수는 집어치고
혹사위의 기업치부 근로자에 분배하라
공장에서 시달린몸 집에오면 생계걱정
물가고는 치솟아서 실질임금 폭락해도
임금인상 요구커녕 쫓겨날까 두려운몸
우리모두 단결하여 착취자를 몰아내고
생존권과 생활권을 완전하게 확보하자
서민대중 보호라고 온갖자금 방출해도
발표와는 달라지니 무어든지 거짓인가
사탕발림 집어쳐라 오장육부 뒤집힌다
서민주택 명분아래 아파트를 세우지만

날림공사 자꾸하여 누구생명 뺏으려가
와우산의 도괴사고 기억에도 생생한데
그토록도 각성없이 몰죽음을 시키려나
자원부족 아우성에 자원낭비 일삼으니
지었다가 헐었다가 어떤놈만 득보는가
팔백만원 건립비에 보수비가 사백만원
그것만도 원통한데 철거비가 칠백만원
그경비가 뉘것인가 서민대중 고�혈인걸
조세감면 한다면서 간접세로 뺏어가고
세제개혁 구호밑에 본격적인 착취로다
우선급한 정치자금 마구재비 지출하고
세금공세 요금인상 물가고로 회수하니
우선달은 사탕발림 순식간에 사라지리
기만작전 걸려들어 속는사람 없이하자
판자집만 뜯어내면 부유할 것 같았는지
남북회담 한다해도 각하따님 다녀가도
심심하면 철거소리 불안해서 못살겠다
서울귀족 위하여서 변두리로 쫓겨나면
직업없어 일못하니 무슨수로 살아갈까
판자집에 사는몸이 오죽해서 살겠는가
먹고살길 있다면야 붙들어도 떠날걸세
근면하라 하지마는 무엇있어 근면하며
검소하라 하지마는 무엇있어 검소할꼬
일거리만 있다면야 놀라해도 일할꺼고

생존비만 있다해도 쪼개가며 절약한다
 근면검소 하란말도 특권층에 적용되고
 자원절약 캠페인도 서민들과 상관없다
 배금사상 만연속에 생활고가 극심한데
 치안경찰 탈선하여 정치사찰 주력하니
 강도절도 불안속에 안심하고 살수없네
 물가단속 한다하여 영세상인 골탕주고
 매점매석 금지란게 가정주부 괴롭히니
 악의근원 건재한채 무슨효과 이루겠나
 중농정책 한다지만 농가소득 줄어들고
 공산품에 눌린농민 저곡가에 한숨진다
 장려사업 따르다간 틀림없이 실패하고
 특수작물 권하지만 몇사람이 득볼건가
 사료값이 오르며는 계란값은 떨어지니
 닭을팔아 비용값고 남는것은 정부빚뿐
 육우자금 양돈자금 부채만을 지게되네
 농협조합 농민의것 개똥같은 소리말라
 농민에게 군림하는 제도적인 수탈기구
 비료판매 독점하여 출자금을 강요하고
 뒷거래로 판매하여 이중으로 수탈하네
 식량자급 말이좋다 식량부족 자초하며
 의미에는 이중곡가 국내산엔 원가미달
 외곡도입 하기위해 분식장려 시켜놓고
 정치자금 뜯어내며 밀가루로 정치하네

폭리보던 밀가루도 국제가격 폭등하니
재정지출 보조금이 천억원을 넘는구나
분식에서 혼식으로 혼식에선 굶으랴까
정책없는 농업정책 한심하게 되었어라
열 올리던 새마을이 근대환출 알았더니
농가소득 증대커녕 상품시장 확대구나
새마을을 계속타간 마을부채 더욱늘고
환상속에 속다가는 농노되기 알맞구나
순진한게 화가되니 배은망덕 위정자며
알고속고 몰라속고 얼울할손 농민이다
민중들의 서러움을 학생들이 대변하니
젊은학생 없다며는 이서러움 어찌하라
불순이란 이름으로 학생주장 부정하고
일부라는 올가미로 학생운동 탄압해도
정당성은 입증되고 악의세력 고립된다
정의로운 학생들이 용감하게 투쟁하라
교련특혜 장학특혜 갖은수로 피어봐도
민주보루 우리학생 명칭하게 속을손가
안암골의 호랑이야 신촌바닥 독수리야
알로차고 위로쳐서 매국노를 쓸어내라
서울시대 전대학이 한꺼번에 쫓기하고
고등학생 시민들이 데모대로 뛰어들때
최루탄이 당할손가 총격전이 막을손가
활화산아 터지어서 혁명전야 밝혀주고

자유의종 울려퍼져 새날새벽 알리어라
한얼민족 내나라에 야생화야 만발하고
민우들아 새얼가져 민주전선 나아가세
지식인파 교수들아 사명감을 잊지마라
자문위원 평가교수 창피해서 어찌하나
몇푼되는 연구비에 침묵하게 된다거나
관의압력 굴복하여 어용학자 되지마라
학생테모 일어날땐 서슴없이 지원하고
결정적인 시기올땐 함께나서 싸워다오
민주지킨 언론인아 용기내어 투쟁하라
곡세아필 청산하고 정론필봉 휘둘러라
대한일보 폐쇄조치 남의일로 생각타가
동아일보 집단파면 언론위기 초래했네
바로닥칠 공동운명 단결해서 극복하자
언론계에 들어올때 편하려고 들어왔나
형극의길 걸으면서 고발하러 들어왔지
민주언론 전통살려 혁명대열 선도하세
민족독립 앞장섰던 신념있는 종교인아
관제집회 이용당해 서민대중 배반말고
순교자의 사명따라 독재타도 나서거라
아부정신 철학되어 과잉충성 하는자야
심기일전 용기내어 바른길을 선택하라
무전유죄 전과자도 새날위해 꺾기하고
실업자와 결식자도 생존위해 투쟁하자

넙마주이 구두담이 모두함께 참여하고
정치수단 예비군도 형식훈련 거부하자
운전사와 차장들도 권익위해 투쟁하고
기회주의 위선자도 몸돌바를 정하여라
정치인도 공무원도 민심동향 바로알라
우리모두 기억한다 칠삼년도 시월데모
장안에서 전대학이 빠짐없이 쫓기하고
민주회복 함성들이 방방곡곡 메아리쳐
고등학생 종교인도 앞다투어 항거했지
유류파동 구실밑에 조기방학 하는통에
겉으로는 일시잠잠 안으로는 더욱강렬
삼사월이 되었으니 쫓기만이 남았어라
민심은 천심이라 어느누가 막을손가
공갈협박 두려울까 폭력탄압 겁낼손가
일순간의 고통이야 굶기보단 훨씬났다
학생이여 일어나라 근로자여 쫓기하자
봉급자는 서울에서 농어민은 시골에서
선열들의 엄호하에 세상천지 진동할세
막을자가 어디있고 버틸자가 그누군가
고통받는 경찰들도 마음으론 우리돕고
우리형제 국군들도 썩은정권 지원없다
절대권력 절대부패 절대멸망 하는도다
우리모두 쫓기하여 유신독재 타도하고
사월혁명 정신살려 민주민권 쟁취하자

나가자! 싸우자! 민주혁명 이룩하자
낙동강의 모래톱과 호남벌의 검정흙이
주체의식 되살리어 새역사의 주인될때
자유평등 사랑속에 태평가를 부르리라



실록·민청학련 | 2 |

제 2 권
수록

1974년 4월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위음

내가 겪은 민청학련 사건 | 유인태 |
반유신투쟁의 전개과정 | 정운광 |
푸른 옷에 실려간 내 청춘 | 김학민 |
우리가 하나되던 때 | 최민화 |
그리움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 이상익 |
열정과 번신의 작은 일기 | 임구호 |
빼앗긴 세월 8년 | 김종대 |
내 남편 우흥선은 결백하다 | 강순희 |
징역 15년에 항소 포기 | 김동길 |
민청학련사건과 인권변호사들 | 김찬국 |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 지학순 |
정의구현운동의 시대적 배경 | 함세웅 |
변호인, 변론으로 구속되다 | 강신욱 |

학민사 | 신국판 352면 | 값 9,500원

www.hakminsa.co.kr